水자원을 잡아라

下 저수지 수변개발

농산물 가공서 휴양·관광까지… 다목적 공간 재창조

전남 6개 저수지 대상 2012년까지 600억 들여 개발

도시민들에 휴식·쉼터 제공, 도농교류 촉진 명소로

매년 봄철이면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 한 저수지에 수백 명의 사진동호인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4월 중순께 아침 햇살이 비칠 때 피어나는 물안개와 함께 활짝 핀 산벚꽃, 새싹을 틔우는 연초록 버드나무가 어우러져 거울같이 잔잔한 수면에 반영되며 '환상적인' 장관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세량제'(細良堤)로 불리는 이곳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1969년 흙으로 둑을 쌓아 만든 저수지로 5만4천여t의 용수를 담을 수 있는 작은 규모이다.

당초 3~4년 전부터 광주지역 사진작가들이 발굴해 하나둘씩 사진을 찍었으나 인터넷을 통해 사진이 공개되며 전국 사진동호인들이 '봄풍경 일번지'로 손꼽을 정도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게 됐다. 하루 500~700여 명의 사진동호인들이 50여m의 제방에서 비집고 들어갈 틈새도 없이 겹겹이 어깨를 맞닿은 채로 사진에 몰입하는 모습은 또 다른 볼거리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농업용 저수지가 단순히 농사에 필요한 물을 가두어 두는 공간뿐만 아니라 자연이 지닌 가치를 활용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창조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농업의 역사와 함께 한 수리(水利)시설= 우리나라 벼농사의 역사는 구석기 시대인 1만5천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장구(長久)하다. 금강지류인 충북 청원군 소로리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볍씨를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무려 1만3천~1만5천여년 전으로 나타나 학계에서 세계 최고(最古) 볍씨로 인정받았다.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다. 이후 본격적인 벼농사가 시작된 이래 가뭄과 홍수 등 숱한 자연재해를 겪으며 농업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풍족한 수리시설에 대한 고민도 함께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규모 수리시설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우리나라 수리시설의 효시로는 전북 김제시 부량면에 위치한 '벽골제'(碧骨堤·사적 제111호)가 꼽힌다. 330년(백제 비류왕 27)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벽골제는 충북 제천 의림지와 경남 밀양 수산제를 합쳐 삼한시대 3대 저수지로 일컫는다. 특히 100여년 전인 1908년 대한제국이 전북 옥구군에 우리나라 최초의 수리조합인 '옥구 서부수리조합'을 설립, 수리사업을 전개한 것에서부터 근대적인 물관리가 비롯됐다.

이와 같이 저수지는 농업의 역사와 궤(軌)를 같이 하며 오로지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풍부한 물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업용수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젖줄' 역할은 물론 지역주민의 휴양공간이자 농촌관광과 연계한 지역명소로 탈바꿈하게 된다.

◇농촌지역의 '어메니티' 증진시키는 수변공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원)는 오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전남지역 6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수변개발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저수지 주변에 아름다운 친수(수변) 공간을 조성, 농촌의 자연경관과 우수한 어메니티(amenity) 자원을 활용해 마을 주민과 도시민들에게 휴식처와 쉼터를 제공하는 도·농교류 공간을 만든다. '어메니티'란 인간이 생태적·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과 접하면서 느끼는 쾌적함·즐거움이나 이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말한다. 농촌의 경우 맑은 강이나 산 등 자연환경, 특산품·토속음식, 지방고유의 축제나 문화, 야생 동식물 등이 어메니티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저수지 수변에 어울마당, 음악분수, 전통음식체험장, 연꽃단지와 같은 농업생산과 가공·유통, 문화, 복지, 휴양과 농촌관광을 할 수 있는 다목적의 공간을 조성해 ▲생태·관광형 ▲휴양·레저형 ▲역사·문화형 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형태로 개발하게 된다. 이와함께 영산강 등 강변마을을 특화시키는 '금수강촌(錦繡江村)' 사업도 눈길을 끈다.

저수지 주변에 다양한 시설이 조성되는 수변개발사업 개념도

전남지역본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와 사전준비에 나서 구체적인 사업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대상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대상지는 기존 노후화된 둑을 높여 저류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 지구중에서 선정하고, 사업예산은 6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종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과거 농작물 생육에만 사용되는 협소한 의미의 농업용 저수지 개념에서 한발 나아가 수변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고유자원을 테마화해 도시민들의 쉼터와 도·농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나간다면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 어메니티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도 사업추진 예산확보와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담양군 용면 용추봉에서 발원한 영산강은 함평천·고막원천·광주천·지석천 등 지류와 합류해 구비구비 흐르며 남도들녘의 젖줄이 된다. 내년부터 농촌의 자연경관과 저수지 수변지역의 우수한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해 도·농교류 공간으로 조성하는 저수지 수변개발과 '금수강촌' 사업이 본격화된다.

영산강 등 4대강 유역 8곳 특산품·자연자원 연계 명품마을 조성

■'금수강촌'(錦繡江村) 사업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밖에는 갈잎의 노래…"

김소월의 시에 나주출신 안성현이 곡을 붙인 '엄마야 누나야'는 자연이 살아숨쉬는 강변의 정경을 잘 묘사하고 있다.

'금수강촌'(錦繡江村)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역의 특산품과 자연자원을 연계해 '명품마을'을 조성하는 농어촌 개발사업이다. 사업초기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영산강을 비롯해 한강·낙동강·금강 유역의 8개 지구를 선정해 우선 추진하고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2013년부터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23개 지구로 확대될 계획이다.

영산강을 품고 있는 전남지역의 경우 광활한 평야와 농수산물이 조화된 음식문화를 살려 먹는 배(梨)와 타는 배(舟)를 테마로 해 다채로운 전통의 맛과 멋, 농산물의 융합을 시도하는 '배마을'이 조성된다.

명품 마을로 선정된 곳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농업기반시설과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특산품·경관작물 등의 향토자원을 관광산업으로 활용해 도·농교류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꾀하게 된다.

전남지역은 내년도에 영산강에 인접한 마을가운데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신규 사업대상 지구 2개소가 선정된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